

팔루스에 대한 여성 욕망과 유동하는 정체성

-신경숙 은희경 전경린의 소설을 중심으로

박형숙

전 중앙대 강사, 문예창작전공

목차

- 1 스스로를 구성하는 젠더
- 2 쾌락 결여의 여성 젠더: 우울증
- 3 쾌락 배제의 여성 젠더: 반복 복종
- 4 쾌락 과잉의 여성 젠더: 패러디
- 5 유동하는 여성 정체성

이 논문은 2019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과제번호)(NRF-2019S1A5B5A07111383)

신경숙·은희경·전경린 소설 속 인물들은 남성 팔루스를 욕망하는 인물들이지만 그 양상은 각기 다르다.

신경숙의 소설에서 여성 인물은 우울증을 통해 쾌락 결여의 젠더를 구성한다. 어린 시절 좌절된 동성애의 기억은 여성 인물을 우울증에 빠뜨리고 그 결과 나르시시즘 단계로 퇴행한다. 이 여성 인물은 남성 팔루스를 욕망하지만 자기 욕망을 철회함으로써 자기 쾌락을 비워두게 된다. 이러한 쾌락 결여의 여성 젠더는 전통적 모성과 조응함으로써 가부장제의 이데올로기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간다.

은희경의 소설에서 여성 인물은 반복 복종을 통해 쾌락 배제의 젠더를 구성한다. 이 인물은 남성 팔루스를 욕망하지만 스스로를 열등 인자로 몰아넣으며 자폐적 세계로 도피한다. 쾌락 배제의 여성 젠더는 정신병원 수감을 거쳐 불모의 성에 이르게 된다. 그것은 결과적으로 가부장제의 근간이 되는 가정을 해체하는 역할을 한다.

전경린의 소설에서 여성 인물은 남성 팔루스를 패러디하는데 그 결과 쾌락 과잉의 젠더가 된다. 이 여성 인물은 남성 팔루스를 욕망하면서 성적으로 과잉된 존재가 된다. 이는 남성 인물의 자유로운 성적 관계에 대한 패러디이다. 이러한 패러디는 남성의 성적 권위를 부정하고 남성/여성 간의 위계를 무너뜨리는 효과를 낳는다. 쾌락 과잉의 여성 젠더는 성에 깊이 빠져들게 됨으로써 성적 모험을 반복하게 된다.

이처럼 여성의 젠더는 팔루스에 대한 욕망에 있어서 여성이 쾌락을 드러내는 방식에 따라 여성의 젠더가 다르게 형성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들은 단일하거나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유동하는 여성의 정체성을 보여준다.

국문주제어: 젠더, 패러디, 반복 복종, 우울증, 여성 정체성

1 스스로를 구성하는 젠더

이 연구는 1990년대 여성 소설에서 여성 정체성이 어떻게 드러나는가를 고찰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990년대는 우리 문학에서 여성 작가들에 의한, 여성이 주인공인 소설이 분출하던 시기였다. 이 시기 소설에는 여성의 성장을 다룬 내면성의 문학뿐 아니라 다양한 성 서사 또한 표현되었다. 그러나 이들 성 서사에 대해서 불륜 문학/여성의 자기 정체성 탐구라는 상반된 극단적인 평가가 있을 뿐 근원적인 비평은 이루어지지 못했다.

우리 문학에서 여성의 성은 오랫동안 남성 작가에 의해서 그려져 왔다. 여성 자신에 의한 표현 또한 여성의 억압적 삶을 표현하는 수단이 되어 왔을 뿐이다. 그런 가운데 여성의 정체성은 주로 모성과의 연결 속에서 인식되었다. 여성성은 성이 소거된 채 고향에 대한 은유로 재현되었고 모성은 여성 성장의 최종 목적지로서 신화가 되었다. 그러나 성은 푸코가 말했듯이 담론과 이데올로기의 구성물일 뿐이다.

급진적인 페미니스트이자 퀴어 이론의 창시자인 주디스 버틀러는 생물학적인 성(sex), 사회적인 젠더(gender), 성적체성을 의미하는 섹슈얼리티(sexuality)를 모두 사회적이고 역사적이고 문화적인 구성물인 젠더로 본다. 이러한 버틀러의 관점은 여성을 본질적인 존재로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변화하거나 맥락화된 현상으로서 바라보게 한다.

버틀러에 의하면 젠더는 명사가 아니라 동사이다. 이것은 젠더가 언제나 행위로 존재하는 가변적인 구성물이라는 의미이다. 예컨대 여성이기 때문에 어떤 젠더를 보이는 것이 아니라 젠더 수행성을 어떻게 행하느냐에 따라서 그의 젠더 정체성이 다르게 구성된다는 것이다.

버틀러가 설명하는 젠더가 구성되는 방식에는 우울증, 반복 복종, 패러디 등이 있다.¹ 우울증, 반복 복종, 패러디를 통해서 어떤 행위를 수행하느냐에 따라서

1 조현준, 『젠더는 패러디다-주디스 버틀러의 『젠더 트러블』 읽기와 쓰기』, 현암사, 2014, 38쪽.

젠더는 구성될 수 있다.

먼저 우울증을 통해 젠더가 구성되는 방식이 있다. 우울증은 대상에 대한 상실을 극복할 수 없어서 대상을 주체의 에고로 합체해버리는 심리적 반응이다.² 이제 애정의 대상은 주체의 에고가 되고, 원래 주체의 에고는 수퍼에고로 변화한다. 이 수퍼에고는 에고에 대해서 주체의 에고가 애정의 대상에게 애정을 발산하듯 증오와 박해를 가한다.

버틀리에 의하면 동성애적 대상의 상실은 목적과 대상의 상실 둘 다를 요구한다. 대상만 상실되는 것이 아니라 욕망도 완전히 부인되는 것이다. 이 사랑의 우울증적 보존은 ‘부정’이라는 총체화된 항로를 통해 안전하게 보호된다.³ 이렇게 이중적 거부의 방식으로 상실을 내면화해서 주체의 심리와 자아를 형성하는 방식이 정체성의 우울증적인 구성방식이다.⁴

두 번째로 반복 복종을 통해 젠더가 구성되는 방식이 있다. 반복 복종은 복종이 반복되는 가운데 주체가 자신의 재의미화를 가능하게 하는 방식이다. 알튀세르에게 주체는 이데올로기가 호명할 때 그에 응답함으로써 탄생하는 것이라면, 버틀리의 주체는 그 호명에 완전히 복종하지 않고 잉여 부분을 뒹으로써 완전한 복종도, 완전한 저항도 아닌 복종을 하는 주체다.⁵ 반복된 법의 호명과 그에 대한 주체의 응대가 일회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이루어질 때 그 과정에서 주체는 불안정성과 비예측성을 가지며 완전한 복종도 완전한 저항도

-
- 2 프로이트에 의하면 사랑하는 사람에게서 냉대를 받거나 그에게 실망을 하게 되어 그 대상 관계가 깨지고 말았을 때 리비도가 다른 대상을 찾는 대신 자아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일이 발생한다. 이때 주체는 대상에 단계에서 나르시시즘 단계로 퇴행하게 된다. 대상 리비도 집중이 나르시시즘으로 후퇴하게 되면 사랑하는 사람과의 갈등에도 불구하고 사랑 관계는 포기할 필요가 없게 된다. 그런데 우울증에 있어서는 사랑과 미움의 대립되는 감정의 병존이 그 전제조건이 되는데, 대상에 대한 사랑이 나르시시즘적인 동일시 속에 숨어 버린다면, 그 동일시에 의한 대체 대상에 증오가 작용하게 되면서 그 대상을 욕하고, 비하시키고, 고통받게 만들어 만족을 이끌어내게 된다.: 지그문트 프로이트, 윤희기·박찬부 옮김, 『애도와 우울증』, 『정신분석의 근본 개념』, 열린책들, 1997, 252-255쪽.
 - 3 주디스 버틀러, 조현준 옮김, 『젠더 트러블』, 문학동네, 2008, 216쪽.
 - 4 조현준, 『애도와 우울증』, 『페미니즘과 정신분석』, 여성문화이론연구소 정신분석세미나팀, 여이연, 2003, 66쪽.
 - 5 조현준, 『젠더는 페러디다』, 44쪽.

아닌 지점이 발생하게 된다. 이것이 주체의 재형성을 가능하게 한다.

세 번째로 패러디에 의해 젠더가 구성되는 방식이 있다. 버틀러는 페미니즘 이론에서 여성 비하적인 것으로 평가받은 드랙⁶에 대해 ‘드랙은 젠더를 모방하면서 은연중에 젠더 자체의 우연성뿐 아니라 모방적인 구조도 드러낸다’⁷고 평가한다. 여기에서 패러디는 원본에 대한 모방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 원본은 원본이라는 관념에 대한 모방에 불과하다. 따라서 패러디와 원본의 관계는 복사본 대 원본이 아니라 복사본 대 복사본이다. 이처럼 젠더 패러디는 원래의 정체성 자체가 원본 없는 모방본이라는 것을 폭로한다. 이것은 자연화되거나 본질화된 젠더 정체성은 없다는 것을 뜻한다.⁸

1990년대 여성 소설은 여성 화자나 인물이 이전 시대와는 커다란 차이를 보였다. 여성이 한 인격으로서 갖는 개체성과 욕망의 문제가 보다 근원적으로 다루어졌으며 이러한 욕망이 성적 욕망으로 구체화되어 표현되었다. 이것은 대개 사랑의 모험담으로 나타났는데 특히 불륜의 형식으로 표현되었다. 이에 대해 남성 비평가들의 비평은 극단적인 조롱과 상찬이 공존하는 가운데 일부 모성 옹호가 있었고⁹ 여성 비평가들의 비평은 두 가지 갈래로 나타났다. 하나는 성 정체성(sexuality)을 여성 정체성과 연관 지어 보는 견해이고 다른 하나는 매너리즘과 통속성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는 견해이다.¹⁰

6 사회에 규정하는 성별 정의에서 벗어나 과장된 메이크업과 퍼포먼스로 자신을 표현하는 행위를 뜻한다.

7 주디스 버틀러, 앞의 책, 343쪽.

8 위의 책, 344쪽.

9 극단적인 조롱과 비판의 경우, 임현영의 “불륜 문학은 쓰레기다”라는 제하의 기사(오마이뉴스, 2004, 9, 17)와 이혼을 절반의 성공으로 정의하고 간음을 황홀한 반란으로 미화한다며 여성 소설을 비판한 이문열의 『선택』(민음사, 1997)이 있고, 상찬의 경우 “순결과 정숙함이라는 남성들의 권력으로부터 여성들은 성과 몸의 주인이 됨으로써 비로소 자유로워진다”고 한 박철화(「여성문학의 위상, 정체성과 다양성」, 『우리 문학에 대한 질문』, 생각의 나무, 2002, 157쪽)가 있다. 한편, 황종연은 주로 모성의 다양한 발현을 칭송하고 있다. (「여성소설과 전설의 우물」, 『문학동네』 1995년, 가을호, 46-61쪽)

10 박형숙, 「현대여성소설의 섹슈얼리티 연구」, 중앙대박사학위논문, 2013, 5-7쪽. 여성 정체성과 연관 지어 보는 견해로는 박숙자, 김연숙, 이정희, 김양선 등이 있고, 매너리즘과 통속성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는 견해로는 정혜경, 심진경, 강유정 등이 있다.

본고는 성 정체성을 여성 정체성과 연관 지어 보는 견해와 그 맥락을 같이 하며, 여성의 정체성을 말하기 위해서는, 선형적으로 주어지는 여성의 본성이 아니라 여성의 성적 쾌락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관점을 취한다. 이것은 여성의 성욕을 자아의 해방으로 보는 관점과는 명백히 다르지만 그렇다고 여성의 성욕을 배제시키는 것도 아니다.¹¹

여성의 성적 쾌락은 성적 위험과 뒤섞여서 나타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자칫 통속적인 상업물과 결합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그 논의의 어려움이 있다. 그럼에도 우리 사회에서 여전히 불편한 구석으로 남아 있는 여성의 성적 쾌락을 여성의 정체성 구성에서 중요한 문제로 보는 까닭은 이것이 젠더 구성과 긴밀한 연관을 맺고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¹²

푸코는 성의 역사에서 ‘욕망인의 계보학’¹³을 서술하였다. 이에 따르면 “쾌락의 활용 혹은 성적 절제는 ‘자기의 지배라는 형식을 갖는 자유의 수행’이며, 이러한 자기 지배는 ‘주체가 자신의 남성적 행동을 행함에 있어 조심하고 자제하는 방식, 그가 타인들과 맺는 관계 속에서 자신과 맺는 방식 안에서’ 나타난다.”¹⁴ 이것은 존재의 부정에 기초한 금지와 억압의 메커니즘이 아니라 스스로를 형성하고 변형시키는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자기의 테크놀로지인 셈인데, 이러한 자기 테크놀로지를 위해서도 여성 욕망에 대한 이해는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90년대 대거 등장한 여성 소설은 여성 욕망을 구체적으로 또 격렬하게 표현했지만, 이것이 온전하게 평가받지는 못했다. 이에 대해 본고는 여성 정체성이 팔

11 고미숙은 여성 소설에서 여성 인물의 성적 욕구에 무지하거나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거나 성적 열락의 배제라는 방식으로만 나타나는 것이 페미니즘 소설을 흥미로운 연애담 수준에 머물게 한다고 평가한다: 고미숙, 「‘순정’과 ‘냉소’ 사이에서 표류하는 페미니즘」, 『비평기계』, 소명출판, 1999, 121-122쪽.

12 페미니즘에서는 여성의 성적 쾌락을 이야기하는 것이 여성들의 성적 주체성을 찾는 데 필수적이라고 본다.: 한국성폭력상담연구소, 『섹슈얼리티 강의』, 동녘, 1999, 40-41쪽. 이에 비해 본고의 취지는 조금 다른데 여성의 성적 쾌락에 대한 분석이 중요한 것은 그것이 각기 다른 젠더 구성을 낳는다는 관점에서 있다.

13 미셸 푸코, 신은영·문경자 역, 『성의 역사 2: 쾌락의 활용』, 나남, 2004, 26쪽.

14 허경, 「‘욕망의 억압’에서 ‘쾌락의 활용’으로-미셸 푸코의 『성의 역사』를 중심으로」, 『인문과학연구』 제23집, 강원대인문과학연구소, 2009. 12, 447쪽.

루스¹⁵에 대한 여성 욕망과 관련을 맺고 있다고 보는 관점을 취한다. 그 욕망의 표현 방식이 각기 어떻게 다른지 그 차이를 명확히 할 때 여성 정체성에 대해 보다 깊이 이해할 수 있으며 90년대 여성 소설에 대해 올바르게 접근할 수 있다고 본다.

여성 정체성은 팔루스에 대한 여성 욕망과 관련을 맺지만 단일하지 않으며 나타나는 양상은 각기 다르다. 그것은 단순화, 도식화의 위험성이 있지만 몇 가지 갈래로 유형화할 수 있다. 그것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이 된다. 쾌락이 결여되어 있거나, 쾌락이 배제되어 있거나, 쾌락이 과잉되어 있는 것이 그것이다. 그리고 그에 따라 여성 젠더는 다르게 구성된다.

본고는 신경숙·은희경·전경린의 소설 속 인물들을 젠더 구성의 관점에서 고찰할 것이다. 이들 작가들에 대한 개별 연구는 활발하게 이루어져 왔지만 세 작가를 같은 층위에서 논의한 연구는 없었다. 이 연구에서 중심으로 삼을 텍스트는 주로 90년대에 발표된 작품들로 신경숙의 「배드민턴 치는 여자」(『풍금이 있던 자리』, 1993), 은희경의 「아내의 상자」(『현대문학』, 1997 발표, 『상속』, 2002 수록), 전경린의 『내 생애 꼭 하루뿐일 특별한 날』(1999)이다. 이들의 작품은 약간의 시차가 있지만 90년대 가장 활발하게 활동한 여성 작가들의 90년대에 발표된 작품이라는 공통점을 지닌다.

2 쾌락 결여의 여성 젠더: 우울증

신경숙의 소설은 쾌락 결여의 여성 젠더를 보여준다. 신경숙의 소설은 흔히 시적이고 서정적인 문체, 내향성, 자연과 합일된 농촌 공동체적인 정서의 환기, 전통적인 여성성에 부합하는 여성 인물들로 알려져 있다. 여기에서 여성은 여성 자신으로서 존재하기보다는 남성의 시선에 의해 포착된, 또 남성의 사랑에 의해 감성이 촉발되는 존재이다. 이것은 여성 문제를 다룬 여러 편의 소설에서 나타나는데,

15 라강은 남근에 대한 상상적이고 상징적인 기능을 가리키는 용어로 팔루스를 사용하고 있다. 팔루스에 대한 개념은 그 용어 설명만으로도 방대하고 복잡하지만, 본고에서는 상상적이고 상징적인 의미에서의 남근이라는 의미로 제한하여 사용하였다.

특히 초기의「베드민턴 치는 여자」(1992), 「풍금이 있던 자리」(1992), 「깊은 슬픔」(1994) 등을 통해서 잘 드러난다고 할 수 있다.

「베드민턴 치는 여자」(1992)는 화원 종업원으로 일하는 이십대 초반의 여성이 겪은 기혼남성에 대한 욕망을 다루고 있는데, 주인공 ‘그녀’는 내면에서 일어나는 욕망과의 싸움 끝에 다른 남성에게 전화를 걸어 성폭력을 자초한다는 내용이다.

채트먼에 의하면 소설과 같은 서사물에는 담론의 시간—담론을 읽는 데 걸리는 시간 즉, 소설 표면에 흐르는 시간—과 이야기의 시간—서사물에서 의미화된 사건들의 지속 시간—이 있다.¹⁶

「베드민턴 치는 여자」를 담론의 시간과 이야기의 시간으로 구분해서 보면 담론의 시간은 하루이다. 그녀는 화원에서 수영장을 거쳐 그가 있는 빌딩 맞은편으로 이동하면서 ‘그’를 욕망하다가 또 다른 기혼남에게 성폭력을 자초한 뒤 미술관 앞 포클레인이 서 있는 공터에서 자신의 감정을 다스린다.

이야기의 시간은 더 길다. 그녀가 여덟 살에서 열 살 사이의 나이였던 무렵부터 시작된다. 이야기의 기원은 어린 날 미나리 밭에서의 기억이다.

그애의 눈, 잉크빛 하늘이 담겨 있던 눈동자, 하얀 목, 밋밋한 가슴, 도드라져 있던 분홍색 젓꼭지. 그애가 눈을 찡긋거리면서 내 뺨에 입술을 댔다. 나는 떨었을 것이다. 그러면서 그애의 메마른 입술에 내 입술을 포갠 것이다. 영상은 여기에서 끝난다. 영상이 끝난 자리엔 야생 미나리 군락지도, 벗은 여자 아이 둘의 몸도 없다. 그 자리엔 내 쓰라린 상처와 그애의 차가운 떨시가 남아 있다. 풀밭에 벗어놓은 옷을 입으면서 나는 생각했었다. 너를 나 자신보다 더 사랑하 거야. 하지만 그엔 나와 반대였었 나보았다.¹⁷

이러한 좌절된 동성애의 아픔은 오랜 시간 잠재되어 있다가 그와의 만남을 통해

16 S. 채트먼, 『이야기와 담론』, 한용환 옮김, 푸른 사상, 2003, 78쪽.

17 신경숙, 「베드민턴 치는 여자」, 『풍금이 있던 자리』, 문학과 지성사, 1992, 172쪽.

되살아난다. 그녀에게 그에 대한 욕망이 생겨난 계기는 우연히 함께 어울리게 된 찻집에서 그가 그녀의 ‘아름다운 눈썹’에 가슴이 뛰었다고 했던 고백과 찻집에서 나왔을 때 그녀의 팔에 돌아난 소름을 보고는 ‘추운가 보군.’하고 팔을 쓸어내린 스킨쉽 때문이었다. 이때 그에 대한 그녀의 사랑은 대상애보다는 나르시시즘에 가깝다. 이러한 나르시시즘은 일종의 자기 연민으로 그녀에게는 슬픔으로 솟구친다.

와아, 슬픔이 솟구치더니, 그 솟구침이 가라앉는 데 한참이 걸리더니, 아아 어찌는가, 그때부터 그는 계속 그녀 곁에 앉아 있는 것이었다.¹⁸

하루 종일 그의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급기야는 그가 있는 빌딩의 맞은편 커피숍에서 앉아 있던 그녀는 문득 자신을 관찰하는 그녀 자신을 느끼고는 무엇인가를 적기 시작한다.

그녀는 그녀 자신이 지금 그녀를 관찰하고 있음을 느낀다. 관찰하고 있는 그녀는 엿드려 있는 그녀를 어느 정도 알고 있다. (...) 고개를 든 그녀의 눈에는, 지금까지 관찰하고 있던 그녀가 전혀 보지 못했던 불안이 넘치도록 담겨 있어서, 관찰하던 그녀는 놀라 사라져버린다. 고개를 든 그녀는 노트를 꺼내고 거기에 뭔가를 적기 시작한다.¹⁹

그녀가 적기 시작한 것은 어린 시절 미나리 밭에서의 기억이다. 그와 함께 되살아난 좌절의 아픔은, 바로 빌딩 바로 앞에서 다른 여자와 함께 걸어가고 있으면서 유리창 안의 그녀를 알아보지 못하는 그를 바라보면서 더 증폭된다.

그녀는 자신의 욕망을 자신에게 내보이는 것만으로도 지금 벅차다. 슬픔에 사로잡힌 자신의 육체를 바라보고 있기만으로도. 그런데도 그가

18 신경숙, 앞의 책, 161쪽.

19 위의 책, 169-170쪽.

바로 그의 눈앞에 있는 자신의 얼굴을 그것도 두 번씩이나 지나쳐가자,
그녀는 지금 야릇해진 것이다.

이제 그녀는 전화를 건다. 사진 기자인 그에게가 아니다. 화원 단골 최에게다. 마흔 살 쯤 되어 보이는 최는, 언제나 그녀가 예뻐서 못 견디겠다는 표정을 짓곤 했다.²⁰

여기에서 우리는 심리의 이동 경로를 유심히 살펴보아야 한다. 어린 시절 미나리밭에서 “너를 나 자신보다 더 사랑할거야.”라고 생각했던 그에게에 멸시를 당한 뒤, 그에게 대한 대상애는 그녀의 내면에 합체되어 오랜 시간 잠재되어 있다가 그녀의 아름다움을 알아봐 주는 그를 만나면서 나르시시즘으로 되살아났다.

그런 ‘그녀’를 관찰하고 있는 ‘그녀 자신’이 있다. ‘관찰당하고 있는 그녀’는 에고가 된 애정의 대상이며, 그녀가 노트를 적기 전 ‘관찰하고 있는 그녀’는 대상애의 상실의 극복되지 못한 상황에서 수피에고로 변한 에고이다. 그가 두 번씩이나 알아보지 못하고 지나쳐가자 그녀는 야릇해진다. ‘야릇해진다’는 것은 수피에고가 작동하는 어떤 신호 같은 것이다. 그녀는 기혼남 ‘최’를 불러내어 성폭력을 자초한다. 즉, 수피에고는 자신이 사랑을 했으나 자신에게 사랑을 주지 않는 대상 그래서 에고가 된 애정 대상에게 자기 처벌을 가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았을 때 그녀와 그 사이에 일어난 일은 아무것도 없으며 단지 그녀 내부의 자기 욕망과의 싸움과 욕망의 자기 철회만이 있을 뿐이다. 이때 그녀는 팔루스에 대한 욕망을 감정의 차원에서는 소망하지만 쾌락의 측면으로는 실현시키지 못한다. 그것은 동성애의 좌절 이후 비어 있다가 그와의 관계에서 시도되었으나 시작되지 못하고 비어 있는 것이다.

신경숙 소설 속 쾌락 결여의 여성 젠더는 이렇듯 우울증의 방식으로 자신의 젠더를 구성한다. 어린 날 동성애의 좌절로 나르시시즘으로 퇴행한 뒤, 동성애의 대상은 에고로 합체되고 에고는 수피에고가 되어 에고에게 박해와 증오를 가하는 것이다.

주디스 버틀러에 따르면 동성의 애정 대상은 주체의 에고로 동일시되며, 동

20 신경숙, 앞의 책, 174쪽.

성애적 성향과 그 애정의 대상은 둘 다 주체의 예고로 내면화된다. 이것은 신경속의 소설에서 빈번하게 등장하는 동성애적 성향과 나르시시즘의 공존으로 나타난다.²¹

쾌락 결여의 여성 젠더는 신경속의 다른 소설들에서는 가부장제의 이데올로기를 따르는 방향으로 나타난다.²² 「풍금이 있는 자리」에서는 불륜(이성애)과 윤리(가족애)의 갈등 상황을 ‘나’가 당신과의 약속을 어기는 것으로 종결짓는다. 소설 내내 이어지는 말줄임표를 통해서 당신에 대한 화자의 간절한 마음을 담아내고 있지만 화자는 결국 자기 욕망을 철회한다. 그 결과 이러한 여성 젠더는 기존의 가부장제 사회에 복속된다.²³

이러한 쾌락 결여의 여성 젠더는 전통적 모성과 연결이 된다는 특징을 보여준다. 신경속 소설의 모성성은 『엄마를 부탁해』(2008)에서 신화화되어 나타난다. 『엄마를 부탁해』에서 엄마 ‘박소녀’는 욕망의 주체라기보다는 소녀, 처녀, 동정녀 마리아라는 원형으로 회귀하는 존재이다.²⁴ 이것은 쾌락 결여의 여성 젠더가 가부장제 사회가 요구하는 완벽한 모성과 어떻게 조응하는지를 아주 잘 보여주고 있다.

3 쾌락 배제의 여성 젠더: 반복 복종

은희경의 소설은 쾌락 배제의 여성 젠더를 보여준다. 은희경의 소설 속 그녀들은 끊임없이 남자들을 만나고 연애를 한다. 그러나 사랑의 환상은 곧 깨지고 만다.

21 이러한 기질은 이후의 작품에도 나타나는데 대표적으로는 중편소설 「딸기밭」, 「베드민턴 치는 여자」를 장편으로 확장시킨 『바이올렛』이 있다.

22 가부장제 사회는 여성을 출산, 양육 등을 통해서 가부장제를 유지하는 수단으로 여길 뿐 여성의 쾌락을 인정하지 않는 사회이기 때문에 쾌락 결여의 여성 젠더와 평화롭게 공존할 수 있다.

23 화자는 한때 엄마의 자리를 차고 들어온 ‘그 여자’를 긍정적으로 그리고 있지만, 그 여자가 떠나주었기 때문에 가족들의 평온이 가능했고 따라서 자신도 그와 같은 길을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24 조선정, 「모성 서사와 그 불만-『엄마를 부탁해』와 <마더>에 나타난 모성 이데올로기 비판의 문화지형」, 이희원 외, 『페미니즘, 차이와 사이』, 문학동네, 2011, 307쪽.

여주인공들은 이루어진 사랑의 남루함과(「빈치」) 근본적으로 에고이스트인 남자들의 무심함(「그녀의 세 번째 남자」) 또 인간관계의 냉혹한 현실(「타인에게 말걸기」)때문에 “사랑이란 다 변형된 자기애일 뿐이야”, “지속되는 사랑이란 건 없어.”라고 끊임없이 사랑을 부정한다. 이렇듯 은희경 소설의 여성 인물들은 사랑을 갈구하지만 동시에 사랑을 부정하는 입장에 놓여 있다.²⁵

연애를 지속하면서도 사랑을 부정하기 위해 여성 인물들이 구사하는 전략은 쾌락의 배제이다.

섹스도 예외일 수는 없다. 나는 섹스의 순간에도 언제나 나를 지켜보고 있다. 관능적 교태와 서정적 수줍음을 적당히 연출함으로써 상대방과의 일치된 행복만 꾀했을 뿐 스스로가 완전히 몰입해본 적이 없다.²⁶

여기에서 ‘지켜보고’ 있는 ‘나’는 「베드민턴 치는 여자」의 ‘관찰하는 그녀’와는 다르다. 「베드민턴 치는 여자」에서 ‘관찰하는 그녀’는 대상애의 상실이 극복되지 못한 상태에서 수퍼에고로 변한 에고이며, 은희경의 『새의 선물』에서 섹스를 할 때 ‘나를 지켜보고 있다’는 ‘나’는 쾌락을 연출한 나를 바라보는 쾌락이 배제된 관찰자 ‘나’이다. 수퍼에고는 에고를 처벌하지만, 관찰자는 관찰할 뿐이다.

이러한 쾌락 배제의 전략은 여러 소설에서 성공적으로 수행되는데「아내의 상자」에 이르면 불모의 성(性)으로 이어진다. 「아내의 상자」는 유산 이후 자폐의 나날을 보내던 기혼 여성이 결국 정신병원에 수용된다는 이야기이다.

담론의 시간은 즉, 소설 표면의 시간은 ‘나’가 아내를 전날 정신병원에 보내고 난 뒤 다음 날 이사 가는 시간까지이고, 이야기의 시간은 ‘나’의 시점으로 포착된 아내의 시간이다. 아내의 시간은 유산을 겪은 뒤 신도시로 이사한 후 수면과 자폐로 점철된 일상을 보내다가 모텔에서 나체로 잠들어 있는 상태로 발견되어 정신병원에 수용되기까지이다.

25 이를 ‘주체의 분열’로 정신분석학적 관점에서 분석한 글로 다음 논문이 있다. 이연숙, 「은희경 소설에 나타난 여성 주체 연구-「타인에게 말걸기」와 「그녀의 세 번째 남자」를 중심으로」, 『한국문예비평연구』 제 37집, 한국현대문예비평학회, 2012.

26 은희경, 『새의 선물』, 문학동네, 1996, 12쪽.

여기에서 모텔에서 아내를 발견한 이후 ‘나’의 서술 속에 드러나는 분노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녀가 갑자기 부엌이나 자기의 방 쪽에서 마치 혼백이 떠돌 듯이 소리 없이 나타나면 그때마다 나는 그녀가 아직 살아 있다는 데 분노했다. 뻔 뻔스럽게도! 왜 자살 같은 걸 안 하나 몰라, 하고 그녀 자신이 개에게 뱀 았던 말을 떠올리기도 했다.²⁷

이러한 ‘나’의 분노는 여러 차례에 걸쳐 강박적으로 반복되어 표현된다.

가장 먼저 할 일은 그녀를 저주하는 일일 것이다.(278쪽)

최소한 용서만이라도 하지 않도록 분노를 솥물에 갈아 버려야 한다.(278-279쪽)

그때마다 나는 그녀가 아직 살아 있다는 데 분노했다.(310쪽)

나는 그녀를 증오했다.(310쪽)

그날 밤의 일에 대해서 자세히 알기를 피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는 순간마다 나 자신까지도 증오했다.(310쪽)

분노하는 화자 ‘나’는 누구인가? 채트면에 의하면 ‘믿을 수 없는 화자’는 화자의 가치관이 내포 작가²⁸의 가치관과 현저히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 나타난다.²⁹ 즉, 이전의 작품들에서 사랑에 관해 조롱하고 여성 인물들의 복수적 성을 표현해 온 작가의 가치관과 「아내의 상자」의 ‘나’—한국 사회의 평균적인 남자—의 가치관은 현저히 일치하지 않으며, 따라서 ‘나’는 믿을 수 없는 화자가 될 수밖에 없다. 일반적으로 독자들은 일인칭 화자의 심리상태에 동화되어 소설을 읽어 나가지만

27 은희경, 「아내의 상자」, 『상속』, 문학과지성사, 2002, 310쪽.

28 채트면에 의하면 소설 속의 작가는 현실의 작가와 정확히 일치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서사 텍스트는 ‘내포작가→(화자)→(수화자)→내포독자’로 구성되어 있다.: S. 채트면, 앞의 책, 170쪽.

29 위의 책, 166쪽.

믿을 수 없는 화자의 경우에는 그러한 동화가 이루어지기 어렵다. ‘나’의 분노는 이 남성이 속한 가부장제 사회가 여성이 행한 불륜에 대해 보내는 것이다. 그것이 강박적으로 표현된 것은 작가의 강조라고 볼 수 있다.

소설을 하나의 서사적 텍스트로 바라보고, 서사의 구조를 표면구조와 심층구조로 나누어 볼 때³⁰, 「아내의 상자」의 표면구조는 자폐증에 걸린 여자의 정신병원수용과정일 뿐이다. 이 소설의 심층구조는 이야기의 시간 속 아내가 겪는 일련의 사건들을 통해서 드러난다. 앞에서 규명했듯이 ‘나’는 믿을 수 없는 화자이기 때문에 아내가 겪는 사건의 의미는 남성 화자인 ‘나’의 시선 아래 감추어져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 의미를 시간의 순서대로 보면 아래와 같다.

① 아내는 대학 입시 날 엄마가 짜준 스웨터에 강박증세가 생긴다. 엄마는 같은 여성이지만 이미 가부장제 이데올로기가 체화된 존재이다. 그런 엄마가 사랑의 표현으로 짜준 스웨터는 도리어 통제와 상징이 된다. 강박증세로 인한 발작 후 대학 부속병원에서 약만 먹었던 기억은 언젠가 읽었던 소설 『벨자 Bell Jar』에 나오는 폐쇄된 바구니³¹에 대한 이미지와 중첩된다.

② 아내는 결혼 후 유산을 겪으면서 스스로를 거세된 존재로 여긴다. 이것은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성은 가부장제에서 쓸모가 없다는 자의식과 다름없다.

③ 그 이후 아내는 이웃과의 교제를 끊고 잦은 수면에 빠져든다. 가부장제 사회의 윤리나 일상적 덕목들은 이웃과의 교제를 통해 끊임없이 재생산된다. 그런데 그런 이웃과의 교제가 없다는 것은 그런 이데올로기 재생산의 고리에서 끊어져 있다는 뜻이다. 또 잦은 수면은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불가능하게 한다. 수면은 집이 일터이기도 한 가정주부에게는 일종의 태업이라고 할 수 있다.

④ 심지어 아내는 모텔에서 나체의 수면 상태로 발견된다. 이웃집 여자와 어울리다가 그런 일이 벌어졌다는 것이 암시될 뿐이지만 ‘나’에게나 독자들에게나

30 S·리몬-케넨은 〈신비평〉, 〈러시아 형식주의〉, 〈프랑스 구조주의〉 〈독서현상학〉등을 종합하여 소설시학을 정립했는데, 소설을 하나의 서사물로 볼 때, 서사구조를 표면구조와 심층구조로 나누어 본다.: S·리몬-케넨, 『소설의 시학』, 문학과지성사, 1985, 22-25쪽.

31 은희경, 앞의 책, 285쪽. 『벨자』는 테드 휴즈의 아내였던 실비아 플라스가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썼던 소설이다. 이 소설에는 자살 직전을 예고케 하는 신경병리학적인 여주인공의 심리가 강박적으로 묘사되어 있다. 벨자의 뜻은 ‘종 모양의 유리그릇’이다.

이것은 가족제도에 대한 일탈로 해석된다. 다만 그 일탈은 수면 상태에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소극적이면서도 비자각적이다. 그것이 불륜이었다면 그마저도 아내에게는 해결책이 아니었음을 암시하기도 한다.

⑤ 그리고 정신병원에 수용되는데, 정신병원 가는 길에 아내는 갑자기 비명을 지르고 난 뒤 빈 닭장을 보고 “닭이 다 없어졌어요”라고 중얼거린다. 이는 아내 자신의 생명의 상실을 암시한다.

이 소설의 제목인 아내의 상자는 아내가 상처를 수집하는 장소이기도 하지만 아내의 생명력을 감금하는 집 그리고 정신병원의 상징이기도 하다.

알튀세르가 호명에 대한 응답으로 주체가 탄생한다고 하였던 데 비해서 버틀러는 호명에 대한 반복적 응대에 주목한다. 응대는 일회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이루어진다. 법 혹은 제도에 대한 복종은 호명에 대한 응대로 이루어지지만, 복종이 반복되면 주체는 불안정성과 비예측성을 가진다.³²

『아내의 상자』에서 반복 복종이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자. 아내는 유산을 겪은 후 자신을 거세된 존재로 여긴다.(2)

“나도 거세당한 거예요.”

담배 연기 때문에 아내는 눈을 깜박거렸다.

“소년원에서 거세를 시키는 건 범법자의 대를 끊어버리려는 거잖아요.

나도 피가 나쁘기 때문에 애를 낳지 못하도록 거세당한 거예요.”³³

그녀는 ‘피가 나쁘’다. 그래서 거세당했다고 생각한다. 여기에서 ‘피가 나쁘’다는 것은 전작 『타인에게 말 걸기』에 수록된 소설들에서 보여주었던 끊임없이 남자들을 만나고 연애를 걸었던 여자들, 다시 말하자면 쾌락에 노출되어 있던 여자들에 대한 가부장제의 시선이다.³⁴ 그렇게 쾌락에 노출된 여자들은 ‘범법자’ 취급을

32 조현준, 앞의 책, 44-45쪽.

33 은희경, 앞의 책, 296쪽.

34 성적으로 자유로운 여자들은 ‘방탕한 여성’들로 인식되어 왔다.: 앤소니 기든스, 배은경 + 황정미 옮김, 『현대 사회의 성 사랑 에로티시즘』, 새물결, 1996, 34-35쪽.

당한다. 피가 나쁘기 때문에 애까지 낳지 못하도록 ‘거세당한’ 것이라는 아내의 말은 사실상 상관관계가 없는데도 유산을 거세 공포와 결합시키는 방식으로 아내의 공포를 드러낸다.

거세당했다는 자의식은 그녀로 하여금 거세의 원인이 되는 자기 안의 쾌락에 대한 감각을 지워내도록 강제한다. 은희경의 쾌락의 배제가 신경숙의 쾌락의 결여와 다른 것은, 결여는 시작되지 못해서 있지 않은 것을 뜻하지만, 배제는 있는 것을 의식적으로 지워내는 행위인 것이다. 거세당한 그녀에게 남은 길은 집을 뛰쳐나가거나 아니면 집 안에 머물면서 가부장제에 복종하는 것일 테지만 그녀가 택한 것은 자기 안의 쾌락을 배제한 채, 집 안에 머무는 것이다.

이러한 아내는 표면적으로는 가부장제에 복종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가부장제가 실현되고 있는 가장 구체적인 장소인 집에 아무런 저항 없이 머무르고 있기 때문이다. 90년대 여성 소설에 빈번하게 나왔던 다른 여성들처럼 그녀는 가출하지도 않고 반란을 꿈꾸지도 않으며 남편과 대립각을 세우지도 않는다. 그녀가 하는 것은 오로지 잠에 빠져드는 것이다.(③) 그녀가 집안에 계속 머무를수록 즉, 복종이 반복될수록 그녀의 자폐와 수면은 깊어진다.

여기에서 버틀러가 말한 완전한 복종도 완전한 저항도 아닌 지점이 발생한다. 이웃집 여자에 의해 이끌려간 불륜의 현장으로 짐작되는 모텔에서 그녀는 수면에 빠져 있다.(④) 모텔이라는 장소는 그녀가 가부장제에 완전히 복종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암시하지만, 수면에 빠져 있는 상태는 그녀 자신을 수동화하면서 완전한 저항 또한 아님을 보여준다.

그녀는 결국 정신병원에 수용된다.(⑤) 그 결과 남편의 가정생활은 유지되지 못하고 이사를 가게 된다. 아내의 정신병원 수용이 갖는 의미는 가정의 해체인데 여기에서 버틀러가 말한 주체의 재형성이 이루어진다. 잠에만 빠져든 무기력한 여성은 가정을 파괴하는 무시무시한 존재가 되는 것이다.

은희경 소설은 이렇듯 쾌락을 배제한 여성이 반복 복종을 통해서 가정을 해체하는 과정을 보여준다. 반복 복종은 표면적으로는 복종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과적으로 가정의 해체를 야기함으로써 파괴적인 성격을 지닌다. 그것은 무기력한 여성 주체를 가정을 파괴하는 존재로 재형성한다.

신경숙의 쾌락 결여의 여성 젠더가 감정적 욕망은 있었으나 쾌락이 실현된

바 없는 여성 젠더라면, 쾌락 배제의 여성 젠더는 상처받기를 두려워한 여성이 자기 안에서 쾌락을 차단한 여성 젠더에 가깝다. 그렇게 쾌락을 차단한 여성의 극단적인 사례가 「아내의 상자」의 그녀이다.³⁵

4 쾌락 과잉의 여성 젠더: 패러디

전경린은 정념의 미학을 화려하게 펼쳐보인 작가로 알려져 있다. 첫 창작집 『염소를 모는 여자』(1996)에 수록된 단편들은 주로 삼십대 중반의 중산층 여성이 허용된 제도 속의 삶과 허용되지 않은 내면의 욕구 사이의 긴장을 표현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삶은 불가해한 운명으로 다가오거나(「낮선 운명」), 자아의 본질은 어느 순간 삶의 벼랑 위에서 훌쩍 뛰어내려야 추구해야 할 것(「염소를 모는 여자」)으로 다가온다.

전경린의 소설은 『내 생애 꼭 하루뿐일 특별한 날』(이하, 『내 생애』)(1999)을 기점으로 본격적인 성 서사로 나아가는데 이때 여성 인물은 쾌락 과잉의 여성 젠더를 보여준다. 여기에서 여성의 욕망은 유례를 볼 수 없을 정도로 확장되어 나타난다.

『내 생애』는 장편소설로 모두 34개의 장으로 액자 소설의 형식을 취하고 있다. 집을 나와 낮선 도시에서 과거를 회상하는 프롤로그와 에필로그가 현재이며 그 안에 담긴 32개의 장이 과거의 이야기이다. 그 내용은 남편의 외도로 인해 영혼에 상처를 입은 ‘나=미혼(이하 미혼)’이 낮선 남자의 제안에 따라 ‘구름 모자 벗기 게임’으로 명명되는 계약 정사를 나누게 되고 이를 통해 자신의 새로운 정체성을 찾아 나선다는 이야기이다.

『내 생애』에서도 작가의 특징인 감각적 표현과 비유의 수사법은 시종 출몰하지만 보다 주도적으로 전개되는 것은 여성 인물을 빌어 표현되는 성적 감각이다.

35 은희경 소설의 쾌락 배제의 여성 젠더는 다른 소설 『마지막 춤은 나와 함께』(1998)에서는 자기 쾌락을 배제하고 연애 관계의 즐거움을 향유하는 쪽으로 나아간다. 이는 통속 소설의 로맨스 플롯과 유사하다.

어떻게 첫 관계에서 내가 그토록 자연스럽게 흥분할 수 있었을까……
(…) 그 정지의 순간 동안 나의 것이 온기를 회복하며 한 잎 한 잎 열려
그를 맛보고 빈틈없이 조이며 끌어안고 뜨거운 숨을 쉬며 깊이 빨아들
여 마침내 삼켜버리려 할 지경에 이르기까지.³⁶

은희경의 소설에서 배제되었던 여성 쾌락의 감각적 측면은 전경린의 소설『내 생애』에서는 화려하게 만개한다.

혈관이 진동을 일으킨 마지막 순간에 경련이 반복되는 동안 밤하늘에
번갯불이 일어나듯 내 존재의 어두운 뿌리에 불꽃이 하얗게 튀어오르는
것이 눈에 보인 듯했다.³⁷

이러한 성적 묘사는 특히 앞에서 보여주었던 쾌락의 결여나 쾌락의 배제가 아니라 성에 대한 개방적 태도 속에 성적 쾌락을 다채롭게 보여주고 있으며 여러 번 반복적으로 표현한다는 점에서 전경린의 소설은 성적 감각의 현상학이라 할 만하다.

- ① 마치 두 남자와 정사를 한 것 같았다. 네 개의 눈동자, 두 개의 입술, 네 개의 손, 스무 개의 손가락, 네 개의 다리, 그리고 분간할 수 없는 겹겹의 숨소리……³⁸
- ② 그의 목, 어깨, 가슴, 키, 다리의 힘, 냄새…… 나의 몸 속에서 당장 꺼내놓을 수도 있을 만큼 그의 육체가 주는 흥분은 내 살 깊숙이 새겨져

36 전경린, 『내 생애 꼭 하나뿐일 특별한 날』, 문학동네, 1999, 131쪽. 이 장면은 여성이 성관계를 했다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것도 금지되어 있던 사회에서 성적 쾌감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점에서 여성 문학 연구자의 감탄을 자아내게 한다. (정순진, 「한국 여성주의 소설의 성과와 전망」, 『여성의 현실과 문학』, 푸른사상, 2001, 90쪽.)

37 위의 책, 131쪽.

38 위의 책, 146쪽.

있었다.³⁹

③ 그가 갑자기 나의 어깨를 물었다. 나는 비명을 지르면서도 털고 일어나지 않고 그대로 있었다. 그의 이빨이 더 깊숙이 내 살 속에 박히도록……

“나도 당신 살을 먹을 수 있을 것 같아.”⁴⁰

④ 나는 손으로 입을 가려요. 어느 순간부터인가 당신의 손인지, 남편의 손인지 혼란스러운 관능에 빠져드는 나 자신의 욕망이 두려워요. 그래요. 바로 이것이 죄이겠지요. 이제 남편과의 섹스와 당신과의 섹스 중 어느 것이 더 부정한지 분별할 수가 없어요. 당신에게 나를 절대적으로 허용하고, 당신의 절대적인 허용을 받고 싶어요.⁴¹

이러한 성 감각의 현상학은, 성에 관한 한 여성 작가에게는 비교적 금지의 영역이었던 영역을 드러낼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새로운 성의 영역으로 끌고 가는 역할 또한 수행한다. 위의 인용문에서 ①은 다중 섹스를, ②는 육체의 흥분을, ③은 피학적 성애와 카니발리즘(인육주의)을 말하고 있으며, ④는 남편과의 섹스=즉 법적·사회적으로 공인된 섹스와 당신과의 섹스=공인되지 않은 섹스를 비교하면서 역설적으로 후자의 가치로 독자를 유인하고 있다.⁴²

이처럼 전경린 소설은 쾌락 과잉의 여성 젠더를 보여준다.⁴³ 이 여성 젠더는 남성의 팔루스에 대한 욕망을 드러낼 뿐 아니라 적극적으로 펼쳐나가는 쾌락 과잉의 젠더이다.

『내 생애』의 미혼은 순결한 사랑과 가정의 행복한 일상을 일치시키는 ‘정숙한 여성’이었으나 남편의 외도 사건을 알게 되고 난 뒤 윗집에 사는 자유로운 남

39 전경린, 앞의 책, 160쪽.

40 위의 책, 226쪽.

41 위의 책, 229쪽.

42 박형숙, 앞의 논문, 83-84쪽.

43 위에 언급된 인용문 외에도, 130쪽, 132쪽, 147쪽, 154쪽, 195쪽, 224쪽, 246쪽에서 성행위에 대한 묘사가 나오는데 이러한 빈도수는 작가의 강조를 의미하며 여기에서 주인공 미혼은 성을 향해 자신을 활짝 개방하면서 고밀도의 성적 감각을 펼쳐 보인다.

자 규의 제안에 동참하면서 쾌락 과잉의 젠더로 변화한다.

규가 제안한 게임은 ‘구름 모자 벗기 게임’으로 사 개월 동안 서로를 성적으로 허용하되 누군가 사랑한다고 말하면 끝나는 게임이다. 그가 냉소적인 태도로 제안하는 ‘구름 모자 벗기 게임’은 무엇일까? 그것은 감정에 매이지 않는 성적 관계를 의미한다. 구름이란 헛것, 언제라도 사라질 수 있는 것, 즉 감정과 연루된 낭만적 사랑을 뜻한다. 그러한 구름으로 된 모자를 벗는다는 것은 낭만적 사랑과 성적 관계를 일치시킨 관념에서 벗어나는 것을 의미한다.⁴⁴

미혼은 이 게임에 동참하면서 성적 해방감의 극치를 맛보며 점점 더 과감해진다.⁴⁵ 규를 통해서 제시되는 관계는 성적으로 맺어져 있으면서도 ‘수상쩍고 고독하고 홀가분한 단독자의 삶’이 유지되는 관계이다. 그러나 이런 관계는 현실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성적으로 자유로운 남녀관계라는 이상에 불과하다. 규가 제안한 ‘구름 모자 벗기 게임’은 이러한 이상을 모방한 게임일 뿐이다. 성행위의 결과가 가사나 육아로부터 자유로운 남자들은 이러한 자유로운 남녀의 성관계에 대한 이상을 손쉽게 가질 수 있었지만⁴⁶ 여자들은 그럴 수 없었다. 그런데 게임에 동참하는 미혼은 자연스럽게 규가 제안하는 게임의 룰을 따르게 되며 그 결과 그 게임을 모방하게 되는 것이다. 그 결과 미혼은 전과 다른 미혼이 된다. 미혼의 정체성의 변화를 낳는 것이다.

주디스 버틀러의 패러디적 정체성은 원본에 대한 모방이 아니라 원본이라 가정되는 복사본에 대한 모방으로 얻어지는 정체성이다.⁴⁷

주디스 버틀러는 드랙을 예로 드는데 만일 여장남성(드랙)이 여성을 모방한다면 이때 모방되는 여성은 사실 여성 자체가 아니라 여성이 지니고 있다고 가정되는 당대의 이상적 관념이라는 것이다.

44 이 소설이 신문에 연재될 당시에 작가는 “구름 모자, 그것은 나에겐 관념의 현실로 이해되었다.”라고 말한 바 있다.(『동아일보』, 1998.8.31.)

45 “성을 통해 해방감의 극치가 어디인지를 아는 가는 여성이 생명력을 얻고 자유를 알게 한다는 의미를 가진다”고 작가는 작가의 말에서 밝히고 있다.

46 “전통적으로 남성은 신체적 건강을 위해서 다양한 성관계를 가질 필요가 있다고 인식되어 왔다.” 앤서니 기든스, 앞의 책, 35쪽.

47 조현준, 앞의 책, 38쪽.

패러디는 원본에 대한 모방이 아니라 원본이라 가정되는 복사본에 대한 모방으로 얻어지는 정체성이기 때문에 원본의 권위를 부정한다. 원본이라는 관념의 패러디적인 반복은 원본조차 패러디에 불과하다는 것을 보여준다.⁴⁸

전경린 소설의 쾌락 과잉의 젠더는 남성의 자유로운 성적 관계를 패러디하는데 그 결과 자유로운 성적 관계의 지위를 독점적으로 누려온 남성의 권위를 부정하고 남성/여성 간의 위계를 무너뜨리는 효과를 낳는다.

미혼이 게임에 참여함으로써 미혼은 효경으로부터 자유로워지며 마침내는 효경과 효경의 집을 떠날 수 있게 된다. 효경이 휘두르는 폭력조차 미혼에게는 더 이상 두려운 것이 아니다. 반면에 미혼이 자유로운 성적 관계의 원본이라고 여겼던 규는 미혼에 대한 감정에 빠져들면서 “사랑해”라고 발언함으로써 게임의 규약을 어기고 스스로가 자유로운 성적 관계라는 이상을 단지 모방하고 있었음을 드러낸다.

이렇듯 쾌락 과잉의 여성은 자유로운 성적 관계에 대한 남성에 대한 패러디를 통해 젠더를 구성한다. 그런데 쾌락 과잉의 여성은 성에 깊이 몰두하게 됨으로써 성적 모험을 되풀이하는 경향으로 나아가는 특징을 보인다.

『내 생애』의 에필로그에서 효경과 집으로부터도, 규로부터도 자유로워진 미혼은 낯선 도시를 서성거린다. 미혼은 “나에게 무슨 일이 있었느냐구요? 글썄요. 어쩌면 그것은 아주 평범한 일이죠. 문제는 그것이 장롱 속에 잠들어 있던 나를 깨웠다는 것이예요.”라고 말한다. 이는 앞으로 일어날 성적 모험을 암시하는 것이다.

따라서 전경린의 소설 속 여성 인물은 한동안 다른 소설들에서 성적 모험을 되풀이하게 된다. 흔히 전경린의 소설에 대한 비평은 정념, 광기, 비의, 야생성 등의 수식어를 동반한다. 이러한 수식어들은 전경린의 소설 속 여성들을 보통의 여자들과는 다른 특별한 정념의 소유자로 치장해준다.⁴⁹ 하지만 그러한 수식어 아

48 주디스 버틀러, 앞의 책, 344쪽.

49 정념의 미학이란 수식어는 90년대에는 그런 특별함이 있었으나, “지금 우리가 이러한 사랑을 바라보며 느끼는 감정은 두려움이 아니라 귀찮음에 더 가까운 것이 아닐까?”라고 뒷세대의 평론가는 말한다.: 황예인, 『내 생애』에 새겨진 지문을 찾아서, 『내 생애』, 문학동네, 2014, 335쪽.

래에서 시도되고 있는 것은 그동안 다른 여성 작가들은 시도하지 못했던 다양한 성적 모험이라고 할 수 있다.

결혼 제도를 유지하면서 동시에 혼외정사를 자신의 집에서 규칙적으로 벌이는 『물의 정거장』(2003)의 「부인내실의 철학」의 희우, 기혼남을 사랑에 빠뜨렸다가 이혼을 하게 만드는 「물의 정거장」의 이혼녀 무숙, 간첩단 사건에 연루되어 고초를 겪은 후 아내와도 헤어지고 11년 동안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았던 화가를 정사 후 자살하게 하는 「장미십자가」, 아예 결혼과 가족이라는 제도적 삶의 울타리를 벗어나 서커서 단장 최모와 젊은 양성애자 류 사이에서 류를 선택하는 「메리고라운드 서커스 여인」, 등에서 여성 인물의 성적 모험은 되풀이된다.

이들은 결혼이라는 제도의 안팎을 오가며 모험을 수시로 행한다. 이 모험은 관습적 질서를 뛰어넘으며 의식의 한 극점을 이루는 여성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독보적이다. 하지만 이들 여성 인물들은 성적 모험을 반복하는 사이에 연애 플롯에 갇히게 되며 이들은 2000년대에 흔하게 볼 수 있는 드라마의 주인공 이상이 아니게 된다.

쾌락 과잉의 여성 젠더는 패러디를 통해 자유로운 성적 관계에 대한 남성의 권위를 무너뜨리지만 비슷비슷한 성적 모험이 반복됨으로써 여성 정체성은 패턴화되고 만다.

5 유동하는 여성 정체성

주디스 버틀러가 제안한 젠더 개념은, 여성이 단지 생물학의 규정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며, 남성과 여성이라는 이분법에 의한 신체 규정에 속하지 않은 사람도 있을 수 있으며, 더 나아가 젠더는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는 구성주의적 관점에서 있다. 버틀러를 급진적 이론가로 보는 까닭은 시몬드 드 보바르의 ‘만들어진 성’의 개념을 더 밀고 나가 생물학적 성(sex)조차 사회적 역할에 의해 젠더로 만들어진다고 보았으며, 태어날 때부터 성별이 불가능한 이들을 남성/여성의 이분법에서 벗어나서 있는 그대로의 성으로 바라보게 하였기 때문이다.

젠더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것이라는 버틀러의 관점은 여성의 정체성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그 의미는 남성/여성의 이분법을 해

체하면서도 하나의 성을 또 다른 권력의 위치에 놓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렇듯 버틀러의 젠더 개념은 퀴어이론의 선구자가 되고 있지만, 본고에서는 90년대 여성 소설에서 빈번하게 드러났던 팔루스에 대한 여성 욕망에 한정시켰고 버틀러가 설명한 젠더 구성 방식에 주목하였다.

90년대 여성 소설에서 나타나는 팔루스에 대한 여성 욕망은 크게 보아 쾌락이 결여되어 있는 경우, 쾌락이 배제되어 있는 경우, 쾌락이 과잉되어 있는 경우로 나누어진다. 이것은 주디스 버틀러가 설명한 젠더 구성 방식인 우울증, 반복복종, 패러디의 방식과 조응하며 그 결과 각기 다르게 여성 젠더를 구성한다.

신경숙 소설의 여성 인물은 우울증을 통해서 쾌락 결여의 젠더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는 가부장제 이데올로기에 부합하는 모성 서사로 나아가는 특징을 보인다. 은희경의 여성 인물은 반복 복종을 통해서 쾌락 배제의 젠더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것은 불모의 성으로 이어져 그 결과 가정을 해체하는 것으로 나아간다. 전경린의 여성 인물은 패러디를 통해 쾌락 과잉의 젠더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는 남성의 자유로운 성적 관계를 패러디한 것이며 성적 모험을 되풀이하는 특징을 보인다.

이렇게 서로 다른 경향성을 지닌 여성 인물들이 여성 소설이 풍미하던 1990년대에 신경숙, 은희경, 전경린 세 작가들에게 나타났다. 이것은 이들 세 작가의 정체성을 뜻하는 것이 아니며, 이들 세 작가의 작품 속 인물에 대한 고정된 특질을 말하는 것도 아니다. 이것은 90년대 여성 소설들에서 나타났던 정체성의 각기 다른 경향성을 말해준다. 즉, 유동하는 정체성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이들의 정체성이 이후에 어떤 변모를 거치는지는 또 다른 분석과 연구를 필요로 할 것이다.

유동하는 정체성은 여성이 쾌락을 받아들이는 태도가 여성성을 각기 다르게 구성하며 가부장제에서의 위치 또한 다르게 만든다는 것을 시사한다. 이것은 또한 여성의 정체성이 고정되어 있지도 않고 단일하지도 않다는 것을 뜻한다.

버틀러의 관점에서 보면 본고는 여전히 남성 팔루스에 대한 욕망이 기준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 남근로고스중심주의라는 비판을 면하지 못할 것이다. 이러한 한계 속에서도 이 글은 한국 사회에서 금기시되어왔거나 이중잣대 속에 퇴폐와 불순의 오명을 써 왔던 여성의 성적 쾌락을 논의의 중심에 두었고, 여성의 정

체성에 관해서는 어떤 고정된 정체성도 주어지지 않다는 것을 규명하려 했다.

참고문헌

작품집

- 신경숙, 『풍금이 있던 자리』, 문학과지성사, 1993.
은희경, 『상속』, 문학동네, 2002.
전경린, 『내 생애 꼭 하루뿐일 특별한 날』, 문학동네, 1999.

연구서

- 여성문화이론연구소 정신분석세미나팀, 『페미니즘과 정신분석』, 여이연, 2003, 66쪽.
정순진, 『여성의 현실과 문학』, 푸른사상, 2001, 90쪽.
조현준, 『젠더는 패러디다』, 현암사, 2014, 38-45쪽.
한국성폭력상담연구소, 『섹슈얼리티 강의』, 동녘, 1999. 40-41쪽.
미셸 푸코, 신은영·문경자 옮김, 『성의 역사 2』, 나남, 2004, 26쪽.
셸로미드 리몬-케논, 최익규 옮김, 『소설의 시학』, 문학과지성사, 1985, 22-25쪽.
시모어 채트먼, 한용환 옮김, 『이야기와 담론』, 푸른사상, 2003, 78쪽, 166쪽, 170쪽.
앤서니 기든스, 배은경·황정미 옮김, 『현대 사회의 성·사랑·에로티시즘』, 새물결, 1996, 34-35쪽.
주디스 버틀러, 조현준 옮김, 『젠더 트러블』, 문학동네, 2008, 216쪽, 343-344쪽.
지그문트 프로이트, 김정일 옮김, 『정신분석학의 근본개념』, 열린책들, 1997, 252-255쪽.

연구 논문 및 비평

- 고미숙, 「‘순정’과 ‘냉소’ 사이에서 표류하는 페미니즘」, 『비평기계』, 소명출판,

- 2000, 108-124쪽.
- 박철화, 「여성 문학의 위상, 정체성과 다양성」, 『우리 문학에 대한 질문』, 생각의 나무, 2002, 147-158쪽.
- 박현이, 「전경린의 「내 생애 꼭 하루뿐일 특별한 날」론-여성인물 ‘미혼’의 변환 과정을 중심으로」, 『문예시학』14권, 문예시학회, 2003, 139-164쪽.
- 박형숙, 「현대여성소설의 섹슈얼리티 연구」, 중앙대박사학위논문, 2013, 1-256쪽.
- 이연숙, 「은희경 소설에 나타난 여성 주체 연구-「타인에게 말걸기」와 「그녀의 세 번째 남자」를 중심으로」, 『한국문예비평연구』제 37집, 한국현대문예비평학회, 2012, 147-168쪽.
- 이주미, 「신경숙 소설에 나타난 자기 파멸의 심리적 메커니즘-바이올렛을 중심으로」, 『한민족문화연구』 27권, 한민족문화학회, 2009, 227-251쪽.
- 장현숙, 「틀 벗어나기, 存在의 상미적(象微的) 소감(消減)-은희경의 단편(短篇) 「아내의 상자」를 중심(中心)으로-」 『어문연구』 28권 4호, 한국어문교육연구회, 2000, 110-133쪽.
- 정경운, 「여성의 ‘몸’을 보는 두 개의 서사: 문자와 영상-정경린의 「내 생애 꼭 하루뿐일 특별한 날」과 변영주의 「밀애」를 중심으로」, 『현대문학이론연구』 26권, 현대문학이론학회, 2005, 277-300쪽.
- 정연희, 「『내 생애 꼭 하루뿐일 특별한 날』의 정신분석학적의미」, 『국제어문』 39집, 국제어문학회, 2007, 367-389쪽
- 조선정, 「모성 서사와 그 불만: 『엄마를 부탁해』와 <마더>에 나타난 모성 이데올로기 비판의 문화지형」, 이희원 외, 『페미니즘, 차이와 사이』, 문학동네, 2011, 300-322쪽.
- 허경, 「‘육망의 억압’에서 ‘쾌락의 활용’으로-미셸 푸코의 『성의 역사』를 중심으로」, 『인문과학연구』 제23집, 강원대인문과학연구소, 2009, 12, 429-452쪽.
- 황예인, 「『내 생애』에 새겨진 지문을 찾아서」, 『내 생애 꼭 하루뿐일 특별한 날』, 문학동네, 2014, 331-351쪽.
- 황종연, 「여성성과 전설의 우물」, 『문학동네』, 1995, 가을호, 41-61쪽.

Abstract

Female Desire for Phallus And Fluid Identity

—A Study of the Novels of Shin Gyeong-Sook, Eun Hee-Gyeong, Jeon Gyeong-lin

Park Hyungsook

In Shin Gyeong-sook's novel, the gender of female characters is one that lacks pleasure due to depression. The female characters desire the male phallus but leave their own pleasures unfulfilled by withdrawing their own desire. This female identity that lacks pleasure functions to strengthen the ideology of patriarchy by aligning with the traditional motherhood demanded by patriarchal society.

In Eun Hee-Gyeong's novel, female characters possess a gender identity defined by the denial of pleasure through repeated obedience. This character desires male phallus but escapes into the autistic world, making herself into an inferior individual. The feminine subjective of pleasure exclusion leads to barren sex after imprisonment in a mental hospital. That results in the dismantling of the family.

In Jeon Gyeong-lin's novel, a female character parodies the male phallus, resulting in feminine identity of excess pleasure. This female character desires the male phallus and becomes a being of sexual excess. This is a parody of the free sexual relationship of male characters. This parody has the effect of denying men's sexual authority and breaking down the hierarchy between men and women. Feminine identity that is defined by excessive pleasure repeats sexual adventures by falling deeply into sex.

As such, women's identities show that gender identity is formed differently depending on the way women reveal their pleasure in their desire for Phallus. They are not single or fixed but rather reveal the fluidity of women's identities.

Key words: gender, depression, repeated obedience, parody, women's identity

투고일 / 2023. 03. 13.

심사완료일 / 2023. 04. 04.

게재확정일 / 2023. 04. 11.